

11/7/18

설교 제목: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에스더 1 장 1-22 절)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더 1 장 1-22 절

- (에 1:1)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절관주** 스 4:6, 에 8:9
- (에 1:2)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절관주** 느 1:1
- (에 1:3) 왕위에 있는 지 제삼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 (에 1:4) 왕이 여러 날 곧 백팔십 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 (에 1:5)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
- (에 1:6)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깬 땅에 진설하고
- (에 1:7)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 (에 1:8)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 (에 1:9)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 (에 1:10) 제칠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 (에 1:11)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 (에 1:12)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

- (에 1:13)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 (에 1:14) 그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이라)
- (에 1:15)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어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 (에 1:16) 므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어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 (에 1:17) 아하수어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 (에 1:18)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 (에 1:19)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절관주** 에 8:8, 단 6:8
- (에 1:20)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 (에 1:21)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므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 (에 1:22)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서는 이방 나라 바사(페르시아,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멸절 위기에 놓여 있던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당신 백성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신 앞에 죄를 저서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들의 계략으로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어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자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내셨는지를 보여주고 그 사건을 후대에까지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자는 우리가 실제로 이 사건 속에 있는 양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믿음으로 자신을 던져 멸절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해낸 유대 여인입니다.

그녀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한마디 결단의 말은 우리 가슴 속에 그녀를 영원한 믿음의 별로 새겨 놓았습니다.

본디 에스더(Esther)라는 이름은 바사(페르시아) 이름 '에스테르'로부터 온 것인데 별을 뜻합니다. 라틴어로는 스텔라(Stella)이고요.

에스더의 히브리식 본명도 꽃 모양이 별과 같이 생긴 도금양 나무, '하닷사(Hadassah)'입니다.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연약한 여인이 자신의 몸을 던져 민족을 구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 결과 북 이스라엘은 BC 722 년 앗수르에게, 남 유다는 BC 586 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후 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70 년을 그발 강가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 중 BC 539 년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남 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바사의 통치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사는 바벨론과는 다른 포로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이 중앙 집권적인 정책으로 포로들을 직접 통치했던 것과 달리 바사는 포로들을 민족별로 자치를 하도록 하는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고레스 왕 때인 BC 537 년 스룹바벨의 지도 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 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생활 기반을 잡고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귀환을 포기하고 바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본서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 남아 있던 자들이었고 이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멸절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 후 BC 457 년경 아닥사스다 1 세 왕 때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2 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BC 444 년경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 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사건이 일어난 때를 바사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지 3 년째 되던 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 1:1)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 1:2)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에 1:3) 왕위에 있는 지 제삼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BC 539 년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이 통치했던 모든 지역을 자신들의 통치 하에 둬으로써 바사 제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고레스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다리오 1 세는 영토를 인도에까지 확장하여 민족과 언어별로 127 도(provinces)로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오 1 세 왕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127 도(provinces)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잔치 자리에서 왕의 명을 거역한 와스디 왕비가 폐위 당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의 충동적인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의외의 사건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 안있어 닥쳐올 멸절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한지 3 년만에 수산 궁에서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수산 궁은 다리오 1 세 왕에 의해 재건된, 바사 왕들이 겨울에 사용하던 겨울 궁입니다.

바사 제국에는 겨울 궁전 수산궁, 여름 궁전 하마단궁, 그리고 봄 궁전 페르세폴리스궁이 있어 계절에 따라 왕들이 궁을 옮겼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겨울이 되어 따뜻한 수산 궁에 거했던 것 같습니다.

바사 왕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큰 잔치들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역사가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런 잔치에는 보통 15000 정도가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개최한 이 잔치도 그 정도의 규모라고 보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마도 이 잔치가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에 1:4) 왕이 여러 날 곧 백팔십 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에 1:5)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

(에 1:6)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깬 땅에 진설하고

(에 1:7)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에 1:8)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잔치의 규모와 호화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에 1:9)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니라

- (에 1:10) 제칠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 (에 1:11)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 (에 1:12)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왕후 와스디는 따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 일째 되던 날 왕이 어전 내시들을 불러 왕후를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술이 올라 기분이 좋아지자 흥이 나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절대 군주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왕은 대노하여 자리를 함께 하고 있던 7 명의 대신들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문습니다.

- (에 1:13)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 (에 1:14) 그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이라)
- (에 1:15)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어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그중에 한 대신인 므문간이 불난데 부채질을 하면서 불소시개를 댁니다.

- (에 1:16) 므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어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에 1:17)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에 1:18)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므무간은 교묘한 논리로 왕으로 하여금 왕후를 폐위할 수 밖에 없도록 증용합니다.

평소 왕후 와스디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파벌이 달라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므무간은 왕의 기색을 살피다가 자신의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끼자 이참에 이 일을 완전히 매듭짓고자 왕을 압박합니다.

(에 1:19)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에 1:20)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외모가 출중했던 와스다가 교만했는지 아니면 술을 먹고 노는 자리에 미모의 아내를 불러내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는 왕의 태도가 마땅치 않았는지 그도 저도 아니면 자신도 잔치를 베푸느라 바빠 여유가 없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왕명을 어긴 와스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이 일이 왕후를 폐위시킬 정도로 크게 변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큰 일을 저지릅니다.

(에 1:21)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므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에 1:22)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후를 폐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는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치게 만듭니다.

세상 만사가 잘난 인간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사에는 새 왕후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새 왕후가 바로 유대 여인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궁전 안에서 하만이 왕을 조정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계획했을때 이 사건으로 인해 왕후 자리에 오른 된 에스더가 그것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되셔서 세상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눈동자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낡은 어머니보다 더하다고 토로하십니다.

(사 49: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